

봉하서 대한문까지 ... 온나라가 추모

(서울 덕수궁)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옛 전남도청 등 분향소 조문객 줄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전국 각지에 마련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노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마을회관 앞을 비롯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과 광주 옛 전남도청, 전북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 부산 서면 옛 부산상고 장학회관 등에도 분향소가 마련돼 고인을 애도하는 발길이 꼬리를 이었다.

또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전국 각지와 재외공관 등에 설치키로 했다.

임시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도 이른 아침부터 추모행렬이 이어져 조문객들이 수십여m를 늘어선 채 분향소 서를 기다렸으며 노 전 대통령 영정 앞에 선 시민들은 4명의 분향과 헌화를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민주당 지도부 10여명도 오후 이 곳을 방문해 시민들의 조문상황을 둘러봤다.

23일 오후 8시 40분부터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의 분향을 시작으로 정치인과 일반인 조문이 시작된 봉하마을 임시 빈소에는 첫날 1만여명이 찾은데 이어 24일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 조문객들로 마을 입구가 크게 북비는 모습이다.

24일 새벽에 줄어드는 듯하던 조문 행렬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오후에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조문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행렬이 1km 가량 이어지는 장사진을 이뤘다.

정오 무렵에는 규모가 작았던 임시 빈소를 대신해 주변에 10m 규모의 철제구조물로 된 공식 분향소가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 수천송이의 국화로 제단이 설치되고 그 위

청와대 조화 다시 보내

○...청와대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분향소에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봉하마을 임시분향소에 이 대통령의 조화를 보냈으나 흥분한 일부 주민과 노사모 회원들이 이를 가로채 쓰러뜨린 뒤 뒷바라지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청와대는 24일 오전 봉하마을 측으로부터 "공식분향소가 마련되는만큼 다시 보내주면 빈소에 모시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뒤 경남도청 고위급 간부를 통해 조화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조문 발길 돌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전날 서거



해인사 대규모 조문시절단

한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았으나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빈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고개 숙여 묵념하는 사진을 올리고 그 아래 "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니다."라는 글을 적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정동영 의원 재차 조문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 조문을 거부당했다.

24일 오후 1시30분께 노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일행과 함께 도착한 김 의장은 마을 입구까지 타고 온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분향소에 가려다 노사모 회원 등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틀째인 24일 분향소가 차려진 김해 봉하마을에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인사의 대규모 조문시절단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있다.

/봉하마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김 의장 일행은 노사모 회원들에게 막히자 1~2분여간 거의 제자리에 머무르다 발길을 돌렸다.

여당 의원 중 이날 현재까지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한 것은 임태희 전 정책위의장이 유일하다. 또 이날 오후 4시경에는 이부영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조문을 위해 마을에 도착하자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했고, 일부는 먹살을 잡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24일 오전 다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연차 회장 비보에 침통

○...박연차 전 대광실업 회장은 24일 전날 면회 온 가족을 통해 비보(悲報)를 듣고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2007년 심장수술을 할 때 몸에 인공혈관을 삽입한 상태인데다 혈압이 180~200mmHg를 오가고 디스크와 신장에도 문제가 생겼던 그는 침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식사

를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건평씨 새벽 빈소 찾아

○...법원의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는 24일 새벽 침통한 표정으로 동생의 빈소를 찾았다.

노건평 씨는 세종증권 매각에 관련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노 씨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오바마 대통령 애도 성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졌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재일 기간 노 전



23일 밤 김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빈소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간의 강력하고 활기찬(strong and vital)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노 전 대통령의 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조문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고 권양숙 여사에게도 개인적인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북 조선통신 서거 소식 보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하루만에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전 남조선대통령 노무현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도에 의하면 전 남조선 대통령 노무현이 5월23일 오전에 사망했다고 한다"며 "내외신들은 그의 사망통보를 검찰의 압박수사에 의한 심리적 부담과 연관시켜 보도하고 있다"고만 논평 없이 짧막하게 전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수당 부당 수령 일제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퇴근기록을 남기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하거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대전시와 동구, 유성구, 대덕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소속 공무원 463명에게 가족수당 2억 688만원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한 명당 월 3만원이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중·고생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무원 본인의 신청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4개 수당에 대해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 수령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특히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위용 드러내는 F1경주장

배수관 공사·땅 다지기 공정률 54%
F1지원법 제정·PF 대출 순조편 탄력

2012년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치러질 F1경주장 트랙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경주장이 점차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전남도는 24일, F1경주장이 건설되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전리 일대 간척지의 연약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총 81만 개, 총 길이 1만3천km의 배수관이 땅 속 최고 20m 깊이까지 시공되는 등 F1경주장 건설을 위한 토목공정이 이날 현재까지 5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묻힌 배수관의 길이는 지구의 지름(1만2천756km)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지구 둘레의 3분

의 1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는 'F1경주장 건설공사가 지구를 관통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경주장 부지를 평평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흙의 양도 상상을 초월한다. F1경주장 부지 다지기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흙은 총 522만㎥로, 15트럭 40만대 분량이며 서울 63빌딩 부피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현재 다음(Daum)이나 구글(Google)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이 같은 F1경주장 건설규모, 공사 진척도, F1트랙의 윤곽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엔



입소문을 타고 모터스포츠 관계자와 일반인들의 F1경주장 건설현장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전남도는 외지인들의 방문이 급증함에 따라 F1경주장 건설현장과 영암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영암 현대호텔 야외공원에 'F1경주장 조성사업 대형 안내판'을 설치해 외

지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영암 F1 경주장은 일반 자동차용 트랙과 F1전용트랙 등 용도에 따라 2개 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서킷으로 만들어지며 직선 1.19km를 포함, 전체길이 5.6km, 최고 시속 350km수준으로 건설된다.

/총행기자redplane@kwangju.co.kr

5만원권 지폐 내달 23일 발행

5만원권 지폐가 다음 달 23일부터 사용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5일 한국조폐공사가 5만원권 제조에 착수, 지난 7일 최초 완제품을 생산했다면서 시중에 공급하는 날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5만원권의 빠른 번호(AA*****A) 100만장 가운데 1~100번은 한은 화폐금융박물관에 전시한다.

101~20,000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매를 실시한다.

경매물량 1만9천900장은 2007년 1천원과 1만원권 발행당시(9천900장)의 2배 수준이다.

경매업무는 한국조폐공사가 담당하고 경매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낸다. 20,001~1,000,000번은 시중은행, 특수은행(산업·수출입은행 제외), 지방은행 본점, 우정사업본부에 무작위로 공급한다.

한은은 발권국과 지역본부에서 '빠른 번호' 외의 5만원권을 대상으로 1인당 20장(100만원) 한도로 교환해줄 예정이다. 신사임당 초상이 들어가는 5만 원권은 가로 154mm, 세로 68mm로 새 1만 원권보다 가로는 6mm가 크고, 세로는 같으며 색상은 황색 계열이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지켜주지 못한 우리 모두 죄인된 기분

광주 동구 그린벨트 17.15km² 해제

집단취락지구·운림동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려

광주시 동구 관내 198개 집단취락지구와 동구 운림동 등 6개 사업지구 등 17.15km²가 오는 31일부터 집단 취락지구 및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나주시를 포함한 광주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307.22km²에서 290.07km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광역시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허가구역 가운데 집단취락지구와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159.21km를 해제하고, 나머지 3천 326.79km를 재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을 1년 간 재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3개월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인천의 녹지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4.4km²는 해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하여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시중의 유통성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가 중복되는 지역에 한해 최소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오는 26일 관보에 공고돼 5일 뒤 발효되며,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해당 자치구 지적과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윤혜기자 chad01@